

[해외축구]'숫돌이' 이강인의 선택은 레알 아닌 발렌시아

등록 2017.03.01 10:00:09



【서울=뉴시스】권혁진 기자 =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받은 한국인 유망주 이강인(16)이 발렌시아에 남기로 했다.

마르카 등 스페인 언론들은 1일(한국시간) "이강인이 2019년 6월까지 발렌시아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"고 전했다.

이강인의 레알 마드리드행이 불거진 것은 지난 달 초다.

발렌시아 지역지인 수페르 데포르테는 "빅토르 페르난데스 레알 마드리드 디렉터가 호세 라몬 알렉상코 발렌시아 유소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강인을 데려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"고 보도했다.

유망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발렌시아는 한 달 가까이 설득한 끝에 이강인을 붙잡는데 성공했다.

이강인은 발렌시아로부터 급여 인상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2018~2019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.

이강인은 2007년 KBSN 예능프로그램 '날아라 숫돌이3'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. 2010년 GS칼텍스의 TV CF에 박지성과 함께 출연, 골을 성공한 뒤 감독 박지성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이 역시 이강인이다.

인천 축구클럽인 플라잉스에서 꿈을 키워가던 이강인은 2011년 1월 발렌시아에 입단, 화려한 플레이로 금세 입지를 굳혔다. 주로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드리블 돌파와 동료들을 활용하는 패스 플레이가 장점이다.

hjkwon@newsis.com